

# 루쉰(魯迅)의 잡문(雜文) 언어와 수사의 정신Ⅱ\*

- 수사행위와 관계론

高點福\*\*

<목 차>

1. 들어가며
2. 수사와 타자(他者)의 관계
3. 잡문쓰기와 소통의 정치
4. 나오며

길이 끝이 나기 전에는/나의 그림자를 보이지 않으리/  
적진을 돌격하는 전사와 같이/나무에서 떨어진 새와 같이/  
적에게나 벗에게나 땅에게나/그리고 모든 것에서부터/나를 감추리.1)

## 1. 들어가며

루쉰의 잡문을 읽는 행위는 그가 처했던 시대의 현실, 혹은 그가 평생 동안 나그네의 심정으로 여기저기 떠돌며 구했지만 다 구하지 못하고 후대의 몫으로 남겨둔 진실과의 대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루쉰의 잡문 어디에서도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354-A00151).

\*\* 협성대학교 교양교직학부 강사

1) 김수영, <더러운 香爐>부분, 《詩》 전집1권(서울: 민음사, 1997, 50쪽).

진실은 무엇인가라는 피상적 관념과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다. 그의 잡문이 말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진실을 구해가는 과정, 즉 불가피하게 주어진 살아가기의 과정을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해나가는가 하는 데에 있다. 루쉰의 잡문은 고단한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만 삶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는 겸허한 자세로 끊임없이 시대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자신의 문제를 시대의 문제로 응축시키거나 확장시켜나가면서 시대의 단상을 그려내고 있다. 그래서 루쉰은 “중국 대중의 영혼은 여기 나의 잡문에 반영되어 있다.”<sup>2)</sup>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적으로도 루쉰의 잡문이 기록하고 있는 중국 대중의 면모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정신이 함께 짝혀 나간다고 하여 사진 찍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원기를 잃을까 두려워 영원히 목록을 하지 않는 名士, 일본의 동북 지방 침략과 이에 대처하는 권력층의 방식, 일본의 침략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시위행진, 가뭄이 들어 기우제를 지내는 농민들과 기우제는 과학적이지 못한 행위라며 반대하는 識者와 이런 識者를 역사시켜버린 일, 北洋軍閥 시대의 고관대작과 正人君子, 上海 조계지의 아동·어용문인·매판·서양인의 하인·벼슬아치·경찰·외국군인·부자상인·천민·승려·깡패·술집마담·기생·모던걸, ‘저축 구국을 외치는 은행가, 문학 구국을 외치는 글쟁이, 예술 구국을 외치는 환쟁이, 오락에 구국이 있다고 말하는 댄스 마니아, 馬占山장군 표 담배를 피우는 것도 구국의 길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는 담배회사의 선전’<sup>3)</sup> 등 루쉰의 잡문은 중국 대중의 영혼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어디에도 구애 받지 않는다.

이처럼 중국사회의 다양한 현상들을 기록하려는 루쉰의 의도는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그런 자질구레한 사건들을 기록해두고서, 거기에는 중국 대중의 영혼이 반영되어 있다고 말하는 루쉰의 자신감은 또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본고의 출발은 이 두 가지 질문에서 시작된다. 적절한 답을 찾아가는 방편으로 본고는 타자와의 관계 맺기라는 수사학의 본원적 목적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

2) <<準風月談>後記>, 《魯迅全集》 5권(베이징: 인민문학출판사, 1981년, 423쪽) 이하 루쉰의 글 인용은 이를 따르고, 작품명과 페이지만 명기.

3) <航空救國三願>, 전집5권, 16쪽 참고.

다. 글쓰기가 소통행위라는 점은 누구나 동의하는 바이다. 중요한 점은 소통행위, 즉 관계 맺기의 방식일 것이며, 루쉰의 잡문은 어떤 방식으로 이를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본고의 주요 논의 대상이다.

루쉰의 잡문 주제가 다양한 원인 가운데 우선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다양한 타자들과 관계 맺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타자를 고려하며 글을 쓰기 때문에 화자는 우선 타자의 소리를 불러들여 그들의 요구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화자는 자신이 처음 가졌던 생각을 조정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글쓰기를 조율한다. 그래서 “수사법은 작가가 그의 독자들과 관계를 확립하고 자기 작품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끌어내고 유도하는 방편이 되는 모든 기교를 포함하게 된다.”<sup>4)</sup> 그 방법으로 루쉰은 “눈가림법과는 반대로 진의가 드러나야 하며, 수식을 없애고, 가식이 적어야 하며, 잔꾀를 부리지 않는다”<sup>5)</sup> 白描 기법을 선호한다. 白描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수사의 전제조건을 루쉰식으로 풀어낸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루쉰 잡문의 수사적 특징과 수사학의 전통이 白描라는 표현에 담겨있다고 해도 무방한 것이다. 루쉰에게 관계 맺기의 출발은 진의가 드러나는 수사행위에 있다. 그럼에도 18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다양한 소재를 대상으로 잡문을 쓴 이유가 완전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언어행위, 즉 창작의 기본 전제이거나 원칙일 뿐, 지난한 세월을 견딜만한 글쓰기의 당위, 혹은 목표는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루쉰 잡문의 가치는 말을 거는 방식의 진실성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관계를 맺는 방식의 진실성에 루쉰 잡문의 모든 가치가 담겨 있다고 할 것이다.

루쉰이 관계 맺기에 주력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세상에는 본래 자신과 관계 없는 일이란 없으며, 다만 이렇게 많은 것을 참견할 정신과 힘이 없어서 부득이 일부만 관여하는 것이라는 편견”<sup>6)</sup>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런 기질을 두고 편집증이라고도 하고, 의심이 많다(多疑)고도 말한다. 본

4) Peter Dixon 저, 강대건 역, 《수사법》(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9쪽)

5) <作文秘訣>, 전집4권, 614쪽.

6) <雜論管閑事·做學問·灰色等>, 전집3권, 185-186쪽.

고 역시 동의한다. 다만 루쉰의 편집증과 다의(多疑)는 모든 세상사를 자신과 연계시켜 자신의 관점으로 세상사를 해석하려는 적극적 의지의 소산임을 밝혀 두고 싶을 뿐이다. 루쉰에게는 많은 것을 참견할 정신과 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자체가 작가의 실존적 당위이다. 작가는 많은 것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할 정신과 힘이 있어야 한다. 작가의 침묵은 곧 정신의 죽음이다. 세상사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할 정신과 힘이 없는 작가는 작가라는 명칭을 거두어둘여야 마땅하다. 언어를 통해 세상사를 해석하는 작가가 세상사에 자신의 언어를 가미하지 못하는 행위는 그것 자체로 책임의 방기이며, 이는 곧 작가의 죽음인 것이다. 작가정신의 죽음, 즉 비판정신의 죽음은 참견할 정신과 힘의 부재를 말해줄 뿐이다. 국민성의 개조를 위해 문예라는 언어예술을 선택한 루쉰에게 세상사에 참견할 정신과 힘은 필수적이며, 그런 자신의 판단을 ‘편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의 문인들에 대한 풍자일 뿐이다.

세상사에 참견하는 방식, 즉 관계 맺기의 방식으로 루쉰에게 주어진 것은 언어이다. “언어란 타인에 대해서도 존재하는, 그리고 그럼으로써만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도 비로소 존재하는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의식이다.”<sup>7)</sup> 관계 맺기의 대상인 타인과 무관한, 대상을 지칭함으로써 다시 자신을 가리키지 않는 언어란 있을 수 없다. 작가가 찾아낸 적절한 표현을 통해 비로소 언어는 대상과 함께 작가 자신을 온전하게 드러낸다. 그렇게 드러난 형상, 다시 말해 언어적 표현이 만들어낸 이미지를 통해 대상과 작가의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관계가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에 구현된 모든 언어적 표현은 대상에 대한 인식이며, 이를 통해 언어는 존재가치를 부여받게 된다. 문체는 작가가 찾아낸 언어가 대상의 진실성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드러내는가 하는 점이다. 그 진실성의 정도에 따라 관계 맺기의 진실성이 드러나며, 인식의 적절성도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가의 언어는 진실한 관계 맺기의 방편으로 자신의 진실성을 기본 전제로 삼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관계 맺기의 진실성은 수

7) 마르크스·엔겔스 저, 김영기 역, 《마르크스·엔겔스의 문학예술론》(서울: 논장, 1989, 135쪽)

사행위의 진실성에 근거하는 것이다.

창작이 언어와 언어 간의 관계를 낫설게 정립하여 새로운 인식을 만들어내는 작가적 의지의 소산이라면, 자신의 뜻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수사학은 언어적 장벽을 해소하고, 나와 타인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언어와 언어 간의 관계 맺기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려는 행위가 창작이라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맺기를 통해 관계의 새로운 차원을 모색하는 행위가 수사이다. 양자는 결국 인간의 언어 행위에 대한 고찰인 것이며, 수사, 혹은 작품 창작이라는 이름으로 나뉠 뿐 언어 행위의 진실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근원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학에서 다루는 수사의 정신과 언어 행위는 관계론적 사고를 추동시키며, 관계론적 사고의 올바른 정립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할 수 있다. 루쉰의 잡문 역시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이다. 이는 정치적·사회적 상황에 따른 가치 부여에 앞서, 잡문의 언어적 특징 자체에 대한 의미 있는 규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 2. 수사와 타자(他者)의 관계

수사는 우리 자신을 타인에게 드러내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자 타인이 나를 인식하는 최소 수단이다. 다양한 표정과 행동, 나아가 예술적 창작은 모두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우리는 타인과의 차이 및 동일성을 확인한다. 그렇게 확인된 차이와 동일성이 바로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바탕이 된다. 다시 말해, 수사행위를 통해 개인은 존재의 현실적 의미를 확인받게 되는 것이다. “수사는 실은 차이들과 동일성들이 드러나는 속에서 사람들과 언어의 만남이다. 사람들은 그러한 속에서 자신들을 드러내어 다시 만나 서로 밀쳐내다 합치의 순간을 발견하건, 혹은 그 반대로 그것이 불가능함을 일깨우

며, 서로를 가로막는 장벽이 있음을 확인한다.”<sup>8)</sup>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즉 관계 맺기의 출발은 나와 타자의 구별이다. 즉, 차이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소통을 위한 수사행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나와 타자의 구별이란 대상과 주체 사이의 거리를 전제로 한다. 대상과 주체 사이의 거리감을 전제로 한 분리와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상의 인식은 대상의 소멸이나 주체의 구축을 의미하지도 않으며, 주체의 소멸이나 대상의 독자적 구축만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대상과 주체의 유기적 관련을 통해 양자의 변화를 낳고, 새로운 인식을 낳는 필연적 과정일 뿐이다. 구별은 대상의 인식을 시도하는 주체에게 선행되기 마련인 인식의 출발점인 것이다. 루쉰은 그것을 상식이라고 말한다.

나는 그들이 다른 사람의 작품을 해부하고 판단하기 전에 자신의 정신을 먼저 해부하고 판단하여 자신에게 천박하고 비속하고 황당한 오류가 있는 지 살필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그들이 약간의 상식을 갖출 것을 바랄 뿐이다. 예를 들어 나체화와 춘화의 구별, 키스와 성교의 구별, 시체 해부와 시체 도륙의 구별, 해외 유학과 '추방'의 구별, 죽순과 대나무의 구별, 고양이와 호랑이의 구별, 호랑이와 양식당의 구별 ..... 등이다.<sup>9)</sup>

일정한 자기 기준도 없이, 대세에 따라 작품의 가치를 논하는 비평가들에 대해 루쉰이 품는 희망은 매우 단순하다. 대상의 구별만이라도 가능케 할 정도의 상식을 갖추라는 것이다. 루쉰은 “일정한 이론이 없거나 혹은 주장의 변화가 일정한 맥락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각종각과의 이론을 가지고 와서 무기로 삼는 자들을 건달”<sup>10)</sup>이라 부른다. 그리고 이런 “비평가가 바로 해로운 문학을 지키는 쇠창살”<sup>11)</sup>이라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일정한 주관도 없이, 논쟁을 위한 논쟁을 위해 수시로 자신의 견해를 바꾸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 비평가들, 명사들, 문인들에 대한 루쉰의 희망은 대상의 구별이다.

8) 미셸 메이에르 지음, 전성기 옮김, 《수사 문제-언어, 이성, 유희》(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12, 24쪽)

9) <對於批評家的希望>, 전집1권, 401-402쪽.

10) <上海文藝之一瞥>, 전집4권, 297쪽.

11) <關於餽譯(上)>, 전집5권, 297쪽.

생물학적 감각기관이 온전한 자라면 누구나 가능한 인식 행위인 대상의 구별마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해부는 어불성설이다. 대상의 구별이 중요한 이유는 구별을 통해 나와 다른 타자에 대한 인식이 시작되며, 내가 행해온 인식행위에 대한 성찰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루쉰의 언급처럼, 대상에 대한 해부와 판단 이전에 자신의 인식행위가 지닌 오류를 살피게 되는 계기도 차이에 대한 인식에 있다. 이를 통해 비로소 주체와 타자의 진실한 관계 맺기가 이루어진다. 비평가들에 대한 루쉰의 희망이 상식에 불과한 구별일 수밖에 없는 것은 구별을 통해서만 대상세계의 다양성, 주체에 대한 성찰, 주체와 대상의 진실한 관계 맺기의 단초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루쉰이 말하는 대상의 구별, 즉 “사실 기술’이란 사건의 해명이고 논증 구성을 위한 기초 토대이고 이를 떼면 어떤 자리이다.”<sup>12)</sup> 이렇게 대상의 구별은 주체의 인식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

소통을 위한 기초 토대가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행해지는 수사행위는 언어적 폭력일 뿐이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기도 하는 언어적 폭력은 소통이 아닌 인식의 강요에서 비롯된다. 이는 관계 맺기의 수단인 수사의 용도를 망각한 행위이다. 한편, 우리에게서 차이에 대한 인식과 자신에 대한 성찰로부터 시작된 본원적 수사행위 역시 존재한다. 우리의 일상은 그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수사행위로 이루어져 있다. 수사행위를 통해 우리는 대상세계를 해석하며, 현실의 수사행위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기도 한다. 수사는 우리의 사고방식과 현실 해석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래서 현실 공간의 사람들이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들 속에서 수사가 작용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제기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개인의 인식과 현실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수사행위가 주로 어떤 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가 하는 점이다. 루쉰의 현실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현대세계에서도 경제적·정치적·문화적 권력의 소유자들이 바로 그들임은 분명하다. 문제는 루쉰과 같은 식자층이 권력의 소

12) 키케로 지음, 안재원 편역, 《수사학-말하기의 규칙과 체계》(서울: 도서출판길, 2013년, 142쪽)

유자들 편에서 수사행위를 하는가 아니면 일반인의 관점에 서는가 하는 점이다. 지식인에 대한 루쉰의 견해가 드러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이다.

루쉰은 지배층의 형성은 자신이 윗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아랫사람임을 폭력적으로 선포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하하거나 자신을 높이는 자의적인 언술 행위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한다.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행위가 가능한 것은 그들이 가진 무력 때문이다. 문제는 폭력적이고 자의적인 언술 행위의 위선을 감추기 위해 종교·철학·과학·세계적 조류라는 수사를 입히는 행위이다. 비논리적·비합리적·비이성적 폭력을 치장하는 언술 행위를 통해 권력을 합리화하는 것이다. 사회학이든 종교적 교리든 이론이란 폭력에 의해 만들어진 권력의 비논리·비이성·비합리를 감추기 위한 수사일 뿐이다. 그리고 권력의 형성과 지배층의 지배를 종교·철학·과학 등의 힘을 빌려 해석하는 행위, 이를 통해 피지배자의 반발과 동요를 잠재우는 행위가 바로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다. 이론이란 지배의 정당화를 설파하기 위해 생각해낸 해석에 불과한 것이다.<sup>13)</sup> 다시 말해 물리적 폭력으로 형성된 지배 관계를 문화·전통·이론의 형이상학적 지배 관계로 변모시키는 역할을 맡는 자가 지식인이다

루쉰의 잡문이 주로 식자층의 수사행위를 겨냥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그의 언어는 대상의 사실성을 지칭하지 않거나 현실을 회피하는 식자층의 수사행위에 일침을 가한다. 식자층의 수사행위는 “당신이 중국의 사상이 혼란스럽다고 하더라도 그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만들어놓은 결정체이다. 선조 때부터 혼란했으므로 자손까지 혼란스럽기 마련이다. 과거부터 혼란했으므로 미래까지 혼란스럽기 마련이다.”<sup>14)</sup>거나, “개는 개의 도리가 있고, 귀신은 귀신의 도리가 있으며, 중국은 이와 달리 중국의 도리가 있다.”<sup>15)</sup>와 같은 형태를 갖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루쉰의 잡문 언어는 “우리들이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은 이전의 경험은 황제의 발아래에서 배운 것이며, 현재와 미래의 경험은 황제의 노예의 발아래에서 배운 것이다.”<sup>16)</sup>라거나, “분명코 현대인으

13) <同意和解釋>, 전집5권, 286-287쪽 참고.

14) <隨感錄(三十八)>, 전집1권, 312쪽.

15) <隨感錄(三十九)>, 전집1권, 317쪽.



로 현재의 공기를 숨 쉬고 있을 터인데 억지로 썩어빠진 명교와 죽은 언어를 끌어와 현재를 멸시해버리니 그 모든 것은 ‘현재를 도살하는’ 것이다.”<sup>17)</sup>와 같은 형태를 취한다. 루쉰의 잡문이 식자층의 수사행위를 겨냥하는 것은 그들의 언어가 위선 혹은 판단의 나약함을 감추는 수식(修飾)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루쉰의 수사행위는 직접적으로 대상의 진실로 향하며, 방식은 자신에 대한 해부로부터 시작된다.

예로부터 이리했다. 독서인이라는 사람은 후배들에 대하여 때로는 적나라하게 때로는 얼렁뚱땅 족쇄를 채웠다. 최근에는 물론 조금 예의를 차리기도 하는데, 누군가가 나타나 학사·문인들을 만나면, 그들은 잠깐만, 앉게나, 하며 가로막는다. 그리고는 도리를 설교하기 시작한다. 조사다, 연구다, 퇴고다, 수양이다 등등을. 결과는 원래의 자리에서 늙어 죽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교란’ 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나 또한 요즘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이미 죽었거나 아직 죽지 않은 선생님들에게 어느 길로 가야하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 그들은 하나같이 동쪽으로도, 서쪽으로도, 남쪽으로도, 북쪽으로도 가서는 안 된다고 한다. 하지만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이나 북쪽으로 가야한다고 하지도 않는다. 나는 그들 마음속의 공공이를 마침내 알게 되었다. ‘가지 말라’는 한 가지일 따름이었다.<sup>18)</sup>

식자층의 언어가 수식(修飾)으로 가득차고, 어떠한 판단도 내릴 수 없는 것은 이해득실을 따지거나 진실과 대면할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루쉰은 각종의 이해를 따진다면 가짜이며 지식인을 사칭하는 자라고 말한다. 이에 비해 참다운 지식인은 이해를 따지지 않는다. 참다운 지식인은 사회에 대해 영원히 불만족이다. 그들이 느끼는 것은 고통과 결점뿐이지만, 그들로 인해 사회는 활기에 넘친다. 그러나 그들 자신은 항상 심리적·육체적 고통을 안고 산다.<sup>19)</sup> “이런 지식인은 반드시 연구하고, 깊이 있게 사고하며, 결단력이 있어야 하며, 나아가 끈기가 있어야 한다. 그 역시 권력을 이용하지만 사람을 속이지는 않으

16) <隨感錄(三十九)>, 전집1권, 318쪽.

17) <隨感錄(五十七)-現在的屠殺者>, 전집1권, 350쪽.

18) <這個與那個>, 전집3권, 144쪽.

19) <關於知識階級-十月二十五日在上海勞動大學講>, 전집8권, 190-191쪽 참고.

며, 사람들을 이끌지만 영합하지는 않는다. 자신을 경시하여 모든 사람의 광대로 여기지 않고, 타인을 경시하여 자신의 부하로 삼지도 않는다. 그는 단지 대중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이다.”<sup>20)</sup> 그들은 “민중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들의 풍속과 습관을 연구하고 해부하여 좋고 나쁨을 구별한 다음, 존속과 폐지의 기준을 세우고 존속시킬 방법과 폐지할 방법을 신중히 골라 실행한다.”<sup>21)</sup> 이처럼 루쉰이 찾는 참다운 지식인이란 구별할 줄 아는 사람, 즉 차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수사행위의 위선을 깨뜨리는 자이다.

루쉰이 설정한 참다운 지식인의 면모에 비해 대다수 식자층은 심리적·육체적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판단을 유보한다. 현실문제에 대한 진단 역시 각종의 수식으로 인해 명쾌하지 않다. 루쉰 역시 인용한 독서인들처럼 판단을 유보하거나 적극적으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신을 醉蝦를 만드는 조수로, 자신의 글을 뜯살하지만 불행한 청년들의 머리를 명석하게 하고 감각을 예민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재앙을 만났을 때 몇 배의 고통을 겪게 하고, 동시에 그들을 증오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생생한 고통을 감상하면서 특별한 향락을 얻도록 한 도구에 불과하였다는 인식에서 이를 알 수 있다.<sup>22)</sup> 그럼에도 루쉰은 수사행위를 통해 식자층을 비롯한 미래 세대들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식자층을 향한 언어와 미래 세대를 향한 언어가 달라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루쉰의 수사가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대상의 성향에 따른 수사학적 선택의 결과이다. “연설가는 설득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신뢰를 줄 수 있는지의 방법과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의 방법을 발견해야 한다.”<sup>23)</sup> 키케로는 말의 신뢰성은 “만약 말이 너무 다듬어지거나 지나치게 세련되어 있지 않다면, 만약 무게와 권위가 말에 있다면, 만약 의미가 무게를 담고 있거나 사람들의 상식과 관습에 어긋나지 않는”<sup>24)</sup> 경우에 얻어진다고 말한다.

20) <門外文談>, 전집6권, 102쪽.

21) <習慣與改革>, 전집4권, 224쪽.

22) <答有恒先生>, 전집3권, 454쪽 참고.

23) 키케로 지음, 안재원 편역, 위의 책, 74쪽.

한 마디로 수사학은 타자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법 찾기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마음을 움직이는 말의 신뢰성이다. 키케로의 언급은 연설가에게든 작가에게든 공히 적용될 수 있는 수사 행위의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나아가 모든 예술 행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설득을 통해 독자와 공감하려는 의지의 산물이며, 이를 통해 비로소 예술가는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론적 가치를 확인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수사학은 모든 주어진 것에서 설득적인 것을 사변적으로 발견하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sup>25)</sup>

설득과 공감대 형성의 방법으로 루쉰이 주로 사용하는 수사는 직설적으로 진실을 설파하는 白描이다. 루쉰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직설적인 언어는 필치가 날카롭다거나 언사도 사정을 두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루쉰은 문예가라면 최소한 자신의 견해를 바로 쓰는 성심(誠心)과 용기가 있어야 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솔직하게 말하는 작품을 통해 기만 이후의 공허를 물리칠 수 있으며, 그때에야 비로소 중국에도 문예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sup>26)</sup> 더불어, 자신은 누구든 자신의 진정한 면모를 드러내기만 하면, 설령 그것이 별다른 가치가 없더라도 경솔한 말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까지 한다.<sup>27)</sup> 이처럼 루쉰은 단순명료하게 진실을 말하는 언어를 선호한다. 가능한 최소한의 단어로 대상의 진실에 바로 다가서는 것이다.

실례이지만 그런 글들을 세심히 읽을 생각이 나는 없다. ‘시철’이 한 말의 요점은 이렇게 계속 분란을 일으키면 대학교수로서의 체통을 잃게 되고, ‘청년들을 지도할 중책을 진 선배’의 추잡한 꼴이 드러나 학생들이 믿지 않게 되고 청년들이 진저리를 칠 것이라는 점 같다. 그래서 가련하게도 추잡한 꼴을 서둘러 감추려고 한다. ‘청년들을 지도할 중책을 진 선배들’에게 이렇게 추잡한 것이 많으며, 또 그것이 드러날까 염려하더니? 신사의 복장으로 ‘추태’를 겹겹이 감싸고 점잔을 떨던 교수이고 청년의 스승인가? ..... 가면을 쓴 채 스승으로 자처하는 자가 있다면 가면을 벗으라고 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것을 찢어버리든가 서로 찢게 만들어

24) 키케로 지음, 안재원 편역, 위의 책, 114쪽.

25) 아리스토텔레스 지, 이종오 옮김, 《수사학 I》(서울: 리젠, 2012년, 58쪽)

26) <葉永蓀作《小小十年》小引>, 전집4권, 147쪽 참고.

27) <我還不能“帶住”>, 전집3권, 244쪽 참고.

야 할 것이다. 선혈이 뚝뚝 떨어지게 찢어버려야 하며, 냄새나는 틀을 잘게 부스고 난 후 뒷말을 할 수 있다. 이때 그것이 반 푼어치의 가치밖에 없더라도 진짜 값이며, 더러워 ‘험오스럽더라도’ 진실한 모습이다.<sup>28)</sup>

여기에서는 쉬즈머(徐志摩)와 루쉰 두 사람의 현실적·학문적 견해 차이에 서 비롯된 분기(分歧)는 논외로 하고, 루쉰의 잡문 언어가 갖는 특징에 대해서만 언급하도록 하자. 앞서 언급한 것처럼, 루쉰의 잡문 대다수는 식자층의 언어행위에 나타난 위선을 폭로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루쉰에게 식자층의 언어는 아침하고, 권세를 부리며, 사리사욕을 탐하면서도 대의를 빌어 미명(美名)을 취하기에 급급하다. “그들은 중국 사람은 건망증이 심하므로 아무리 언행이 일치되지 않고, 명실이 부합되지 않으며, 앞뒤가 모순되고, 거짓말과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퍼뜨리고, 출세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걱정할 필요 없이 얼마쯤 시간이 지나면 깨끗하게 잊히며, 단지 道의 수호자인 양하는 글만 조금 남기면 장래에 ‘正人君子’가 되기에 충분함”<sup>29)</sup> 숙지하고 있다. 예로부터 독서인의 수사행위란 ‘교란’이나 ‘분란’의 방지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루쉰은 무슨 정치적 조류니 당(黨)이니 하는 것에 초연해하고 공평해 보이는 학자나 교수의 추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가 관심을 갖는 것은 체통이라느니 공정이라느니 하는 껍데기를 둘러쓰는 행위이다. 추태(醜態)는 추한 것 그 자체로 진실한 것이기 때문에, 루쉰의 관심은 추태에 공정이라는 가면을 둘러쓰는, 신사의 복장을 하고 추태를 겹겹이 감싸는 수사의 위선성을 밝히는데 있을 뿐이다.

루쉰은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가셔도 안 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하지도 않는 독서인의 태도에서 ‘가지 말라’는 한 가지 진실을 추출해낸다. ‘시철(詩哲)’의 수사를 통해서도 교수이며 청년의 스승의 진면모를 밝혀내는데, 바로 ‘신사의 복장으로 ‘추태’를 겹겹이 감싸고 점잔을 떠는’ 자이다. 어느 방향으로든 가셔도 안 되고 가야 한다고 하지도 않는, 신사의 복장으로 추태를 겹

28) <我還能“帶住”>, 전집3권, 242-243쪽.

29) <十四年的“讀經”>, 전집3권, 129쪽.

겹이 감싸고 점잔을 떠는 교수이자 청년의 스승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을 향해 루쉰은 비수를 날리는 것이다. 이렇게 루쉰의 잡문은 수식과 달변으로 가득한 수사행위의 위선을 간단명료한 언어로 파헤쳐버린다. 루쉰의 수사가 독서인이거나 '시철'의 그것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것은 글쓰기에 임하는 태도, 가치관, 현실 경험 등 제반 요소가 결합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타자의 공감을 얻기 위해 우선적으로 자신을 해부하고, 해부된 자신을 통해 대상을 되비추는 루쉰의 사유 방식이 핵심이다.

수사의 전제 조건인 타자의 부재는 수사행위자의 순수한 절망을 의미할 뿐이다. 타자의 부재는 소통과 공감의 가능성 자체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행위자에게는 절대 고독을 지칭한다. 루쉰 역시 그런 절대 고독을 경험했다. 《新生》이라는 잡지의 출판이 좌절되고, 귀국 후 <광인일기>의 발표까지 10여 년의 침묵이 이를 상징한다.<sup>30)</sup> 그 침묵은 루쉰으로 하여금 자신의 문학적 수사가 처한 현실 상황을 처절하게 깨닫도록 했을 것이며, 그의 문학적 수사가 산출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다른 의미에서 침묵은 대중의 반향이 없는 상태이자 침묵을 깨뜨리려고 하는 자의 현실 인식이 비릇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반향을 얻기 위해 루쉰은 청중의 상태를 알아야 하며, 자신이 어떤 청중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를 성찰할 수밖에 없다. 청중이 처한 사회적 환경, 청중이 행사하는 사회적 기능,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청중의 취향 등에 대한 루쉰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 과정을 통해 루쉰의 문학적 수사는 청중의 공감을 획득하게 된다. 그 과정은 타자와 주체의 사유가 상호작용하고 투쟁하면서 새로운 인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사에는 항상 타자와의 인식적 교류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작가란 수사행위 가운데 자신과 함께 타자를 지각하는 자이며, 작가의식은 타자의 선행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에서 항상 때늦게 탄생된다. 루쉰에게는 그러한 자가 바로 '전투적 작가'이며, 전투적 작가의 본령(本領)은 '논쟁'에 있다.

30) 여기에서 말하는 절대 고독은 반향이나 공감을 획득하지 못한 자의 실존론적 상황을 지칭할 뿐이다.

그러나 나는 결코 적에게 웃음을 지으며 굽실거리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전투적인 작가라면 마땅히 '논쟁'에 치중해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詩人에게는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 분노하고 조소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조소에 그쳐야 하고, 따끔한 질책에 그쳐야 하며, 또한 '기쁨, 조소, 분노, 질책이 모두 글이' 되어 적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죽게 하고 자신에게는 비열한 행위가 없도록 하며 보는 사람도 더럽다고 여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투적인 작가의 本領입니다.<sup>31)</sup>

다케우치 요시미(竹內好)는 논쟁을 루선의 문학이 “자신을 지탱하는 양식이자 ‘생애의 지정거림’이었을 것”<sup>32)</sup>이라고 하면서, 루선이 논쟁에 치중했던 것은 고통의 표출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한다. 다케우치의 분석에서 흥미로운 점은 루선이 대항했던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상대화된 자신이었다는 언급이다. 즉, 상대방 속에 가둔 자신의 고통을 대상으로 논쟁을 벌였다는 것이다.<sup>33)</sup> 다케우치의《루선》은 실존론적인 관점에서 루선과 그의 작품을 분석한다. 루선의 소설과 시를 절망의 외침이라고 말하는 부분이나, 논쟁의 성격을 “암흑의 밑바닥에서 자기를 형성했던 그가 이제 밝은 태양 아래에서 자기를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sup>34)</sup> 과정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점이 반증이다. 본고 역시 이와 같은 다케우치의 분석에 동의한다. 다만 여기에서는 관계론적인 차원에서 수사의 의의를 루선의 잡문과 연결시켜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듯, 수사행위의 전제조건은 타자이다. 타자, 즉 청중이 없으면 텍스트, 즉 수사의 결과물 역시 있을 수 없다. 텍스트는 청중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화자의 의도를 관철시키거나, 다양한 방식의 수사를 통해 청중의 마음을 움직임으로써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다. 수사의 종합인 텍스트는 항상 청중을 지향한다. 어디까지나 “수사는 청중 앞에서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말을 잘 하는 기술, 능변의 기술이다.”<sup>35)</sup> 루선에게 그것은 적에게 웃음을 지으며

31) <辱罵和恐嚇決不是戰鬥>, 전집4권, 453쪽.

32) 다케우치 요시미(竹內好) 지음, 서광덕 옮김, 《루선》(서울: 문학과지성사, 2003, 8쪽)

33) 다케우치 요시미(竹內好) 지음, 서광덕 옮김, 위의 책, 132쪽 참고.

34) 다케우치 요시미(竹內好) 지음, 서광덕 옮김, 위의 책, 133쪽.

35) 미셸 메이에르 지음, 전성기 옮김, 위의 책, 14쪽.

몹실거리는 행위가 아니다.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분노하거나 욕설을 퍼붓는 행위도 아니다. 모든 감정이 끓어 되어 논쟁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면서도 자신에게는 비열한 행위가 없도록 하며, 보는 사람도 더럽다고 여기지 않아야 한다. 한 마디로 작가와 독자, 즉 화자와 청자를 현혹시키는 각종 제약을 극복하고 상대의 본질을 드러내는 방식이라야 한다. 문제는 청중을 지향하는 텍스트, 혹은 수사의 진정성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수사의 진정성을 파악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 수사학이 아닌지를 묻는 것이다. “그것은 부도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부도덕한 수단을 사용하는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부도덕하게 여론을 조작해 내는 선동가들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sup>36)</sup> 자신의 생각을 일방통행 식으로 전달하는 행위, 즉 타자를 의식하지 않는 수사행위 역시 진정한 수사와는 거리가 멀다. 루쉰에게 그런 수사는 단순한 감정의 발설이거나, 자신의 나약함을 감추려는 위선적 행위이거나, 권위를 앞세워 자신의 견해를 강요하는 언어적 폭력일 뿐이다.

이에 비해 루쉰의 잡문 언어는 자신의 감정은 최대한 자제하고, 논적의 언어가 지닌 위선성을 꿰뚫고 들어가 사건의 진실을 전달하는데 몰두한다. 루쉰은 “글과 말에 입은 있지만 마음이 없어, 보아도 들어도 아무런 느낌이 일지 않는”<sup>37)</sup> 글을 조상 대대로 내려온 오래된 가계의 문자라고 부르면서 회피한다. 국민성 개조가 문예활동의 이상인 루쉰에게 독자나 청자의 감흥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수사는 소모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감흥을 이끌어내기 위해 그의 “모든 발화는 정당성, 진리성, 아름다움과 진실성(형상적 발화) 등을 요구한다.”<sup>38)</sup> “그의 대부분의 글쓰기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 삶에 관한 것인”<sup>39)</sup> 이유도 여기에서 찾아진다. 거기에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실제적인 삶을 기술하여 화자나 청자의 공감을 획득하기 위한 루쉰의 고민이 담겨 있으며, 그것 자체로

36) 미에치슬라브 마넬리, 손장권·김상희 옮김, 《페렐만의 신수사학 - 새로운 세기의 철학과 방법론》(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06, 73쪽)

37) <隨感錄(四十)>, 전집1권, 321쪽.

38) 미하일 바흐친, 김희숙·박종소 옮김, 《말의 미학》(서울: 도서출판길, 2007년, 430쪽)

39) John Chinnery, <Lu Xun and the Contemporary Chinese Literature>, 《The China Quarterly》, No.91, Sep. 1982, 414쪽.

루쉰이 세계를 지각하고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루쉰의 잡문에는 수사를 통한 소통의 꿈이 담겨 있는 것이다.

### 3. 잡문쓰기와 소통의 정치

글쓰기, 다시 말해 수사행위를 통한 소통의 꿈은 루쉰의 생애 전체를 아우른다. 소설과 시, 잡문 등 루쉰의 모든 글쓰기는 중국인의 영혼을 담아내어 그들의 감흥을 이끌어낸 후, 그들을 삶의 길로 이끌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이 과정에서 루쉰 역시 자신의 실존론적 자각을 강화해나갔을 것임은 미루어 짐작이 된다. 암흑의 밑바닥에서 자신을 형성했던 루쉰이 다시 밝은 태양 아래에서 자신을 형성해야만 했다는 다케우치의 실존론적 평가는 합당하다. “항상 인간과 인간 사이에 놓인 높은 담장이 사람들을 제각기 분리시켜 서로의 마음을 통하지 않게 하는 듯한 느낌을 갖는”<sup>40)</sup> 루쉰이라면, 분명 암흑의 밑바닥에서 자신을 형성했을 것이다. 여기에서 암흑의 정체는 소통불가능성에 대한 자각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수사의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 주체가 타인에게서 존재를 확인받는 수단은 수사행위 뿐이다. 자신의 세계가 담긴 수사가 타인에게 거부되는 것은 존재의 실존 자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다시 말해 루쉰 자신의 수사와 역사적·문화적으로 형성된 중국의 전통적 수사 사이의 간극, 근대적 교육과 해석을 통해 근대사회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루쉰의 수사와 현대적 수사 사이의 간극이 가져온 작가의식의 분열이 바로 소통불가능성의 자각에 담긴 내용인 것이다.

수사의 간극은 존재의 분열을 야기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의식의 분열은 존재의 파멸로 이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해결 방안을

40) <俄文譯本《阿Q正傳》序及著者自敘傳略>, 전집7권, 81쪽.



찾아야 한다. 방법은 자신의 수사를 포기하고 전통적이거나 현대적인 방식을 따르든가, 자신의 것을 고집하든가, 아니면 양자의 간극을 위태롭게 왕래하는 것뿐이다. 여기에 루쉰의 잡문 언어가 지닌 수사학적 특징으로서의 소통의 꿈이 담긴다. 루쉰이 변론의 타당성과 진실성을 담는 수단으로 선택한 수사적 책략은 짧은 편쪽으로 거침없이 정곡을 찌르는 것이다. 단문(短文)이라는 수사적 책략을 통해 루쉰은《新青年》을 중심으로 한 新舊派 간의 논쟁에서부터, 現代評論派와의 논쟁, 創造社와 太陽社와 벌인 ‘革命文學’에 대한 논쟁, 左聯을 중심으로 한 좌익과 비좌익간의 논쟁, 左聯 내부에서 발생한 ‘두 개의 구호논쟁’에 이르기까지 18여 년의 수사적 분열을 버틴다. 18여 년의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을 논쟁의 중심에 서서 견딜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일까? 왕후이(汪暉)는 “오직 이러한 논쟁 속에서만 자신이 인간 세상에 살고 있음을 느꼈다.”<sup>41)</sup>고 말한다. 다케우치의 실존론적 분석처럼, 왕휘 역시 논쟁을 루쉰 삶의 한 양상으로 본다. 루쉰의 글에서도 이런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이런 短評은 쓰지 말라고 권고하는 사람 역시 있다. 그 호의는 고맙게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나도 창작의 소중함을 모르는 바도 아니다. 그러나 이런 글을 써야만 할 때는 이런 글을 쓸 수밖에. 만약 예술의 전당에 이런 귀찮은 禁聲이 있다면 차라리 들어가지 않고 사막 한 가운데 서서 날리는 모래와 구르는 돌맹이를 보면서, 즐거우면 웃고, 슬프면 소리 지르고, 화나면 욕을 퍼붓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모래 알갱이에 맞아 온몸이 거칠어지고, 머리가 깨져 피가 흘러, 그때마다 자신의 凝血을 어루만져야 하더라도, 거기에 꽃무늬가 있다면, 중국의 文士들을 따라 셰익스피어 곁에 앉아 버터 바른 빵을 먹는 흥취보다 나을지 모른다고 생각한다.<sup>42)</sup>

중국의 소위, 문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주적 묘리나 인생의 도리, 공리와 정의를 모색하는 글을 쓰면서, 문학은 그런 것이며, 루쉰에게도 그런 글을 쓰라고 권한다. 그러나 그들의 수사에는 현실의 실상이 담겨 있지 않다. “살아나가고자 하는 데도 생명의 거의 전부를 소모해야”<sup>43)</sup> 하는 시대, 모래가 날고

41) 汪暉, 《反抗絕望—魯迅及其文學世界》(中國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2000. 18쪽)

42) <華蓋集題記>, 전집4권, 4쪽.

43) <致蕭軍·蕭紅>, 전집12권, 584쪽.

돌맹이가 구르는 사막과 같은 현실, “가련하기 짝이 없는 작품만이 양산되어 가련하기 이를 데 없는 사회를 대표하는 시대, 그리고 그 가련함에는 ‘看熱鬧’ 하는 독자와 관객들 모두 포함되어 있는”<sup>44)</sup> 가련한 시대의 진실은 담겨 있지 않다. 중국사회와 중국인을 지배하고 있는 수사는 자기변명과 이해타산에 급급하며, 존재론적·사회적·역사적·정치적 현실에 대해 아무런 진단을 내리지 못한다. 루쉰은 그들이 말하는 우주적 묘리나 인생의 도리, 공리와 정의를 모색하는 글들이 엄숙하고 고상한 가면에 불과하거나 현실을 호도하기 위한 수단이며, 그들이 만든 禁畵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들의 가면을 감추기 위한 수단에 불과함을 알고 있다. 더불어 그 자신의 수사가 그런 수사행위 사이에서 단련되어야 함을 알고 있다. 오랜 단련을 통해서도 진실을 담아내기에 벅차고, 현실에 대해 내리는 자신의 진단이 무기력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루쉰은 끊임 없이 그들의 수사에 개입한다. 그런 개입이 지난한 세월의 논쟁으로 이어졌으며, 그렇기 때문에 다케우치나 왕후이가 논쟁을 루쉰 실존의 양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본고의 판단이다.

20세기 초 중국의 지성사적 측면에서도 18여 년에 이르는 긴 시간의 논쟁이 갖는 의의를 살펴볼 수 있다. 루쉰이 벌인 논쟁에는 전통과 서구 문물의 수용과 배척, 문예와 정치의 관계, 민족적 위기의 해결과 근대국가 수립 등과 관련된 각 政派들의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어 있다. 李澤厚의 표현대로 啓蒙과 救國에 대한 다양한 방향들이 제시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의 연장선에서 국민성 개조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문예를 선택한 루쉰이기에, 각 政派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동조는 필수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간단히 20세기 초 중국의 지성사는 수사의 주도권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의 장이었다고 할 것이다. 국가적·민족적 위기 극복 방안으로 다양한 형태의 수사가 전개되었으며, 루쉰 역시 그러한 역사적 흐름에 자각적으로든 비자각적으로든 참여했던 것이다. 중요한 것은 수사행위자의 도덕성과 논쟁을 통해 어떤 형태의 수사가 사회적 주류로 형성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후자에 대해서는 신중국의 성립과 함께

44) <七論“文人相輕”一兩傷>, 전집6권, 405쪽.

사회주의를 향한 수사가 주류로 형성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서는 논쟁을 통해 루쉰이 지향했던 점과 수사행위자로서의 도덕성을 확보하는 방식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戰國시대의 철학자 순자(荀子)는 “지금 세상에는 사악한 학설을 꾸미고 간사한 말을 꾸며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지나친 거짓말과 매우 간사한 행동으로 온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어, 옳고 그름과 다스려지고 혼란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모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sup>45)</sup>고 말한다.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순자》는 최우선적으로 언어행위의 도덕성을 중시하며, 순자의 철학은 수사학 처한 현실에 대한 진단으로부터 입론이 시작됨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그가 중시하는 ‘君子必辯’의 현실적 유용성을 직감하게 된다.<sup>46)</sup> 다시 말해 순자는 자신이 처한 시대, 자신의 언어가 맞닥뜨리고 있는 세계의 수사행위에 대한 진단으로부터, 상황과 대상에 따라 ‘12명의 학자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sup>47)</sup> 《순자》가 비판하고 있는 12명의 학자는 분명 전국시대를 주름잡았던 수사행위자들일 것이며, 그들의 주장은 비도덕적이며 현실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순자의 판단이다. 다시 말해, 순자가 최우선적인 가치로 두는 것은 수사행위의 도덕성이다.<sup>48)</sup> 사악한 학설과 간사한 말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원인은 그것들이 도덕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시비(是非)와 치란(治亂)마저 흐릿해진다. 루쉰이 말한 대상의 구별조차 불가능한 것이다. 이는 서양의 수사학적 전통과도 유사하다. 서양의 고대 수사학자들은 윤리학을 수사학의 필요

45) 순자 지음, 김학주 옮김, 《순자》, <12명의 학자를 비판함(非十二子)>(서울: 을유문화사, 2013년 2판 7쇄, 171쪽)

46) 수사를 ‘능변의 기술’로 정의한 로마 제국의 수사학자 퀸틸리아누스에게서도 동서양의 수사학적 전통이 갖는 유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미셸 메이에르 지음, 전성기 옮김, 위의 책(15쪽) 참고. 동서양의 수사학적 전통이 갖는 유사점에 대한 분석은 박우수의 <수사학 전통에서 본 에토스와 문화>(《외국문학연구》제26호, 2007년 5월)를 참고

47) 본고는 순자 철학의 내용에는 관심이 없으며, 본고가 다를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 다만 ‘君子必辯’이라는 언급에서 《순자》의 수사학적 특징을 유추해내어 본고의 논지 전개에 활용하고자 할 뿐이다.

48) 중국 전통에서 수사와 도덕 수양의 관계에 대해서는 陳汝東, 나민구·송미령·조연정·김혜원 번역, <선진시기의 중국수사학 사상>(《수사학》제3집)을 참고할 수 있다.

조건으로 보았으며<sup>49)</sup>, 니체는 “수사학은 첫째, 정의와 진리의 대변자로서 유용하다. 그리고 둘째로는, 엄격한 가르침의 형태가 불가능한 특정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정의와 진리의 대변자로서 유용하다.”<sup>50)</sup>고 말한다. 루선의 잠문 언어 역시 이와 같은 동서양의 수사학적 전통을 충실히 따른다.

역사에는 중국의 영혼이 기록되어 있고 미래의 운명을 보여주고 있지만, 수식이 지나치고 쓸데없는 말이 많은 까닭에 진상을 알아차리기가 녹녹치 않다. 달빛이 무성한 나뭇잎을 통과하여 이끼를 비출 때, 점점이 부서진 그림자로만 보이는 것처럼.<sup>51)</sup>

루선은 과거 역사를 통해 중국의 영혼과 미래의 운명을 알 수 있지만, 지나친 수식과 쓸데없는 말로 인해 진상이 감춰지기도 한다고 말한다. 이는 진실을 밝히려는 언어가 지나친 수식과 쓸데없는 말에 둘러싸여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해준다. 루선의 수사는 현실 공간을 떠도는 진실의 탈을 쓴 거짓이 벌이는 슬픈 촌극들 사이에서 점점이 부서진 그림자로 비추어지는 진실을 찾으려고 한다. 이를 통해 역사에 기록된 중국인의 영혼에, 인간의真相에 빛을 드리우고자 하는 것이다. 더구나 언어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행동을 좌우하는 힘이 있기도 하지만, 언어를 통한 진실의 재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루선의 수사는 머뭇거림과 가감 없는 표출 사이를 맴돌 수밖에 없다. 그 스스로 자신의 글은 용솟는 것이 아니라 쥐어짜낸(擠出來)<sup>52)</sup> 결과물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구나 말로 설복시키는 수사의 경우 “공손하면서도 엄숙한 태도로 임하고, 바르고 성의 있는 태도로 대처하며, 굳건하고 강하게 주장을 펴고, 비유를 들어가며 깨우쳐 주고, 사리를 분별해 밝혀 주고, 기뻐하게 하고 좋아하게 하여 자기 뜻을 이해시킴으로써, 그것을 보물처럼 여

49) 키케로 지음, 안재원 편역, 위의 책, 241쪽, 역자 설명 참고.

50) 프리드리히 니체, 김기선 옮김, 《니체전집1 - 언어의 기원에 관하여, 이러한 맥락에 관한 추정, 플라톤의 대화 연구 입문, 플라톤 이전의 철학자들,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I, 유고(1864년 가을~1868년 봄)》(서울: 책세상, 2003년, 461쪽)

51) <忽然想到>, 전집3권, 17쪽.

52) <《阿Q正傳》의成因>, 전집3권, 376쪽.

기고, 진귀하게 여기며, 귀중하게 여기고, 신묘하게 여기도록”<sup>53)</sup> 만들어야 한다. 수식과 쓸데없는 말로 가득한 수사행위로부터 자유롭고 진실된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루쉰은 도덕성과 현실성이 겸비된 수사학적 정치를 수행하는 것이다.<sup>54)</sup>

루쉰은 徐懋庸이 쓴 《打雜集》에 서문을 쓰면서 자신은 잡문을 애독하는 사람이며, 그 이유는 잡문이 ‘言之有物’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루쉰 스스로가 내린 ‘言之有物’의 의미는 ‘현재에 꼭 맞으며, 생동적이고, 발랄하고, 이로울 뿐 아니라 인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sup>55)</sup> 이처럼 그가 잡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개별적 존재이자 사회의 구성원으로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다. 그들과의 공감을 통해서만 루쉰이 벌이는 수사학적 정치는 현실적 효용을 발휘하게 된다. 자신의 유일한 무기인 언어를 통해 현재를 변화시킬 생동적이고 발랄한 수사행위를 펼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은 위대한 변혁을 묘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말의 잔치로만 끝나는 행위도 아니다. 자신과 그물망을 형성하고 있는 현실의 사람들이 부딪치는 “현재의 생활에서 받은 느낌, 직접 경험한 것을 작품에 새기기”<sup>56)</sup> 위한 것이다. 잡문을 통해 루쉰이 찾는 것은 인정을 변화시킬 소통의 창구이며, 소통은 민주적이며 구어적인 환경에서만 그 가능성을 열어 보인다. 잡문에 벌려진 루쉰의 수사는 자질구레한 것들로 가득하지만, 그것 자체로 루쉰적 수사의 진실을 담고 있다. 순자는 군자라면 말로 설복시키는데 능해야 된다고 하면서, “군자는 현명하지만 무능한 자도 받아들이며, 지혜가 있지만 어리석은 자도 받아들이고, 박식하지만 천

53) 순자 지음, 김학주 옮김, 《순자》, <관상은 정확하지 않다(非相)> (서울: 을유문화사, 2013년 2판 7쇄, 164쪽)

54)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에서도 이와 동일한 장면을 찾을 수 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은, 저들의 변론처럼 미사여구로 장식된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조금도 장식되지 않은 말을 들으시게 될 것입니다. 즉, 나는 여러분에게 나의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꾸밈없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의 말이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플라톤, 박병덕 옮김, 《소크라테스의 변명·크리톤·향연·파이돈》, <소크라테스의 변명>, 서울: 육문사, 1995, 30쪽)

55) <徐懋庸作《打雜集》序>, 전집6권, 292-293쪽 참고.

56) <文藝與政治的岐道>, 전집7권, 115쪽.

박한 자도 받아들이며, 순수하지만 잡된 자도 받아들인다. 바로 이것을 모두를 아울러 받아들이는 술법<sup>57)</sup>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루쉰이 잡문에 벌려놓은 것들이다. “이런 하찮은 물건들이 벌려져 있는 노점은 고정적인 진열 방식도 없으며, 파는 물건에도 한계가 없다. 대체적으로 일상생활에 쓰임이 있고, 원하는 이가 있다면 모두 벌려질 수 있다.”<sup>58)</sup>

이는 문예를 통해 소통 가능성을 찾는 루쉰의 희망사항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 “새로운 주장을 선전하는 자가 불을 놓는 자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정신적 연료가 있어야 불이 붙는다. 악기를 연주하는 자라면,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도 현이 있어야 소리가 날 수 있다. 유성기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유성기가 있어야 함께 울릴 수 있다. 중국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서로 어울릴 수 없다.”<sup>59)</sup>와 같은 구절을 만나면, 문예를 통한 소통의 꿈마저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사행위를 통한 소통의 꿈이란 어쩌면 실존적 고독에서 비롯된 허구적 욕망일지도 모를 일이다. 한편으로, 수사행위를 통한 소통의 어려움은 수사행위자가 갖춰야 할 도덕성과 글쓰기의 철저함을 반증하기도 한다. 수없이 많은 루쉰의 잡문은 바로 그와 같은 수사행위의 양가성을 증명해준다.

#### 4. 나오며

루쉰에게 “문학은 가장 쓸모없는 것이며, 아무 힘없는 사람들이 떠드는 것<sup>60)</sup>에 불과하다. “말을 하고 글을 쓰는 것은 거의 모두 실패자의 상징이다.”<sup>61)</sup> 그럼에도 루쉰은 끊임없이 말을 건다. 마치 어떤 명제에 대해 끊임없이

57) 순자 지음, 김학주 옮김, 《순자》, <관상은 정확하지 않다(非相)>(서울: 을유문화사, 2013년 2판 7쇄, 163쪽)

58) 黃捷, <試論雜文的“雜”>, 《宿州師專學報》, 2000년 3기, 24쪽.

59) <隨感錄(五十九)“聖武”>, 전집1권, 354쪽.

60) <革命時代的文學>, 전집3권, 417쪽.

61) <通訊>, 전집3권, 22쪽.

질문하거나, 옹호하려 들거나, 변호하려거나, 비난하려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 가라도 한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끊임없이 지속되는 발화행위에서 인간의 본원적 면모를 찾을 수 있다. “언어는 자신을 표현하고 객관화하려는 인간의 요구로부터 나오며, 여러 형식과 방법을 통해 언어의 본질은 개인의 정신적 창조로 귀착되는 것”<sup>62)</sup>이기 때문이다. 루쉰의 대다수 잡문은 인간 삶의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적 성격이 강하다. 거기에는 인간 삶의 조건에 대한 주장도 들어 있으며, 삶의 기본적 조건을 해치는 것에 대한 반발도 표현되어 있다. 삶의 조건을 관조적으로 조망하는 이론이 아닌, 논쟁에 의해 분열된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열정이 담겨 있다. 루쉰의 수사는 직접적으로 행위를 겨냥하면서, 청자가 실천적·이론적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언어들로 가득하다. 루쉰이 잡문에 벌려놓은 언어는 공허한 말의 잔치가 아니며, 위대한 변혁을 다루는 언어도 아니다. “쌈뽕하는 듯한 사상이나 위대하고 화려한 글도 없으며, 선전할 만한 주의도 없다.”<sup>63)</sup> 그렇지만 루쉰의 잡문 언어는 사상과 주의, 화려한 글보다 생기에 넘친다. 루쉰의 잡문은 살아있는 언어를 통해 현재를 만들어온 모든 조건들과 미래의 중국을 만들어갈 조건들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 주를 이룬다. 이것이 가능한 원인은 무엇보다 고정적이고 규정적인 모든 것을 의심하는 루쉰의 사유 태도인 ‘다양한 관점에서 질문하기(多疑)’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루쉰의 ‘多疑’적 사유 태도는 질문을 던지는 방식의 다양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존재에 대한 인식의 다양성,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수사에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단순히 질문에 관계된 문제가 아니라, 질문의 방식과 표현에까지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화자가 청자의 화두에 귀를 기울이는 계기는 질문의 적절성과 제기 방식, 표현의 타당성에 있기 마련이다. 루쉰은 “창작은 자신의 마음을 기록한 것에 불과하지만 보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기 마련이다.”<sup>64)</sup>고 말한다. 소통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작

62) 미하일 바흐친, 김희숙·박종소 옮김, 위의 책, 359쪽.

63) <寫在《墳》後面>, 전집1권, 282쪽.

64) <小雜感>, 전집3권, 532쪽.

가는 독자의 제반 상황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이며, 적절하게 제기된 질문을 통해 독자는 자신의 정신세계를 넓히거나 지식을 증가시키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 과정에서 독자의 정신세계에 파문이 일게 되며, 작은 파문에 의해 이곳의 변화가능성도 생긴다. 말의 힘은 그렇게 강력하다. 현실적으로 말은 무기력하고 보잘것없지만 인간의 영혼을 이끄는 신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 루쉰은 문학을 無用之用한 것으로 단정하지만, 無用之用的 문학을 통해 수사의 진정한 가치를 구현해낸다.



< 參考文獻 >

- 루 쉰, 《루쉰전집》1·3·4·5·6·7·8·12권(베이징: 인민문학출판사, 1981년).  
 다케우치 요시미(竹內好) 지음, 서광덕 옮김, 《루쉰》(서울: 문학과지성사, 2003년).  
 아리스토텔레스 지, 이종오 옮김, 《수사학 I》(서울: 리젼, 2012년).  
 키케로 지음, 안재원 편역, 《수사학-말하기의 규칙과 체계》(서울: 도서출판길, 2013년).  
 미셸 메이에르 지음, 전성기 옮김, 《수사 문제-언어, 이성, 유희》(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12년).  
 미에치슬라브 마넬리, 손장권·김상희 옮김, 《페렐만의 신수사학 - 새로운 세기의 철학과 방법론》(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06년).  
 Peter Dixon 지, 강대진 역, 《수사법》(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년).  
 순 자 지음, 김학주 옮김, 《순자》(서울: 을유문화사, 2013년 2판 7쇄).  
 마르크스·엥겔스 지, 김영기 역, 《마르크스 엥겔스의 문학예술론》(서울: 논장, 1989년).  
 미하일 바흐친, 김희숙·박종소 옮김, 《말의 미학》(서울: 도서출판길, 2007년).  
 프리드리히 니체, 김기선 옮김, 《니체전집1 - 언어의 기원에 관하여, 이러한 맥락에 관한 추정, 플라톤의 대화 연구 입문, 플라톤 이전의 철학자들,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I, 유고(1864년 가을~1868년 봄)》(서울: 책세상, 2003년).  
 플라톤, 박병덕 옮김, 《소크라테스의 변명·크리톤·향연·파이돈》, <소크라테스의 변명>(서울: 육문사, 1995년).  
 김수영, 《詩》 전집1(서울: 민음사, 1997년).  
 汪 暉, 《反抗絕望-魯迅及其文學世界》(中國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2000년).  
 John Chinnery, <Lu Xun and the Contemporary Chinese Literature>, 《The China Quarterly》, No.91, Sep. 1982.  
 黃 捷, <試論雜文的“雜”>, 《宿州師專學報》, 2000년 3기.  
 박우수, <수사학 전통에서 본 에토스와 문화>(《외국문학연구》 제26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07년).  
 陳汝東, 나민구·송미령·조연정·김혜원 번역, <선진시기의 중국수사학 사상>(《수사학》 제3집, 한국수사학회, 2005년).  
 졸 고, <루쉰의 잡문 언어와 수사의 정신 I-존재론적 접근>(《중국어문논총》 제65집, 중국어문연구회, 2014년).

## &lt;Abstract&gt;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e meaning of Lu Xun's essay at the rhetorical level. Various phenomena of Chinese society are described in Lu Xun's essay. Lu Xun said that his essay reflects the soul of the Chinese people. This article's conscious of the problem comes from here, Particularly pay attention to the intrinsic purpose of the rhetoric. The purpose of rhetoric is to bear relation with the others. The point is that writing is a communicative action everyone agreed. Importantly, communicative action, that would be the way of entering into relationship. Unrelated to the subject of entering into relations with others, there is no language that does not refer to himself by referring back to the target. Language finally reveals the artist himself fully with the targets through appropriate representation of the artist found. Therefore all the linguistic expression is expressed in works is recognition of the subject, through which language is endowed with a value.

Key word: Lu Xun's essay, Rhetoric, Others, Relationship, Language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5. 3 29	2015. 4 15	2015. 5. 3.	2015. 5. 15.	2015. 5. 31.